전법 일기

“입술의 3초, 가슴에 30년” 관계는 사소함서 무너진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찾아오셔서 “스님 절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신도들 간의 관계가 문제였다. 상담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 면밀히 신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는 중, 몇몇 신도들의 말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다고 한다. 그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한마디 말에 찔려 아파하는 아주 찰나의 감정이다.

부처님께서도 십선계경에서 신구의(身口意) 삼업 중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비록 입에 향수를 뿌리더라도 죽은 시체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악한 말을 좋아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시 같고 칼, 오물과 같아진다. 향기 가운데는 아름다운 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악취 가운데는 악한 말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상대가 툭 던진 단 한마디의 말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잘 알면서도 실상, 삶의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것은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말로 상대만 아파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의미 없는 말로 무심코 한 말이지만, 상대는 뇌리 속에 박혀서 비~잉빙 맴돌고, 자꾸 되뇌이면서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들마저 다시 곱씹게 되면서, 앞으로의 관계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단 3초의 한 마디에 가슴에 피멍이 든 것이다. 내가 하는 한 마디에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그냥 한 마디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기억해 보면, 나의 말 한마디로 함께 하시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일들이 생각난다. 절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 오신 신도에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하며 자존감에 상처를 준 일이다. 일이 바쁘고 힘드니깐,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 당시에도 참회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참회를 올린다.

관계는 아주 사소함에서 무너진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의 말을 건네는 일에 대해 용기를 내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 용기의 시간은 우리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이다.

“아무에게도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받은자가 그대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격정적인 말은 고통을 야기하니 되돌아온 매가 그대를 때리리라.” 〈법구경〉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⑥ 알레르기와 사회병리현상

사회적 알레르기 현상, 결국 욕망의 문제

생명에 대한 기술 즉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지향점은 의료현실에서 활용된다. 생명기술의 정점은 최종적으로 무병과 장수를 약속하며 의학과 진료 분야에서 꽃피우는 것이 상례이다. 생명기술은 과학기술과 상보적으로 발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은 생명의 속성을 검토하고 있다.

티끌이 하나 일어나니 모든 대지를 거둬들이고, 꽃 한 송이가 피니 온 세계가 열린다.(一塵　大地收 一花開世界起)
–〈벽암록〉 T48, 159a11

불교는 색법보다 심법에 집중하듯, 생명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기술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주라는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은 절 집(寺)의 언어(言)인 시(詩)로 노래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들판의 꽃 한 송이는 과학기술의 분석 대상 그 이상일 수 밖에! 하지만 티끌 하나조차 일어나지 않고 꽃 한 송이도 피지 않을 때, 그때에는 어찌할 것인가? 은산철벽의 도래! 그때가 지금인 것만 같으니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다.

우리 시대의 기묘한 도착 증세인 알레르기(allergy)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악보에서 알레그로(allegro)는 ‘빠르게’를 지칭한다. 알레그로에서 파생된 알레르기는 생체적 반응이 일찍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병리적 징후를 말한다. 이는 정상적 반응보다 빠르게 준동하는 것이므로 과민증상을 의미한다. 즉 조급성 또는 과민성 증후군에 속하는 것들이다.

현재 알레르기 현상, 속도와 관련
성급한 산아 정책, 저출산에 영향
욕망 관련 인지부조화를 살펴보라

알레르기 증상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의 생태와 비슷하다. 또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을 보고 놀라는 일처럼, 어둠 속의 썩은 새끼줄은 두려움으로 작동하여 공포스럽게 독사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원인물질(allergen)이 직접 작용하기도 전에 요동치는 것은 병리적 인지부조화에 기인한 불안반응이며 두려움 때문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오류이다.

일련의 알레르기적 증상들은 개체적 속성을 넘어서 온갖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단면 가운데 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일화들은 알레르기 증상의 대표적 예이다. 얼마 전까지 정관수술을 하면 진급에서 유리한 평점을 주고 예비군 훈련면제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구호는 둘도 많다며 보건 당국이 호들갑을 떨었다. 인구조절의 효과가 긍정되는 듯하다가 이제는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알레르기적 반응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욕망 그 자체이다. 욕망의 그림자는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한다. 욕망을 구조화한 자본주의적 체제는 구성원들의 상호 경쟁을 바탕으로 비교의식과 자의식이 과잉되도록 조장하고 있다.

순금의 진가를 알려면 단련하는 용광로 속을 살펴야 한다.(要識眞金火裏看)
–〈선문염송설화〉 H76, 10a20

욕망으로 불타오르는 용광로는 욕망 자체를 불사르며 불성의 실체를 연단하는 수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티끌 하나, 꽃 한 송이의 과제로서 온 우주의 일에 속하게 된다.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사바세계를 짊어지는 삶이 된다. 욕망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그 알레르기 증상들을 돌아보아 석존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눈을 열어두어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원각사 재건 불사, 시대정신 담아내길

불사(佛事)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총칭한다.

근래에 불사는 사찰을 중창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일이 불사지만 사찰을 세우고 전각을 짓는 것이 불사의 근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유산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인근에서 30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에 나섰다.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은 물론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 스님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된 원각사 재건 불사는 본래 자리는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시대정신이 담겨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 원경 스님은 1994년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무료급식 명맥이 2015년 끊어질 위기에 놓이자 급식소를 인계를 받아 9년째 이끌고 있다. 주변 상권에서 환영받는 공간도 아닐뿐더러 임대로 인한 불안한 상황서도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서원 하나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최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을 보태온 봉사자들과 십시일반 함께 한 후원자 덕분에 작은 터전을 계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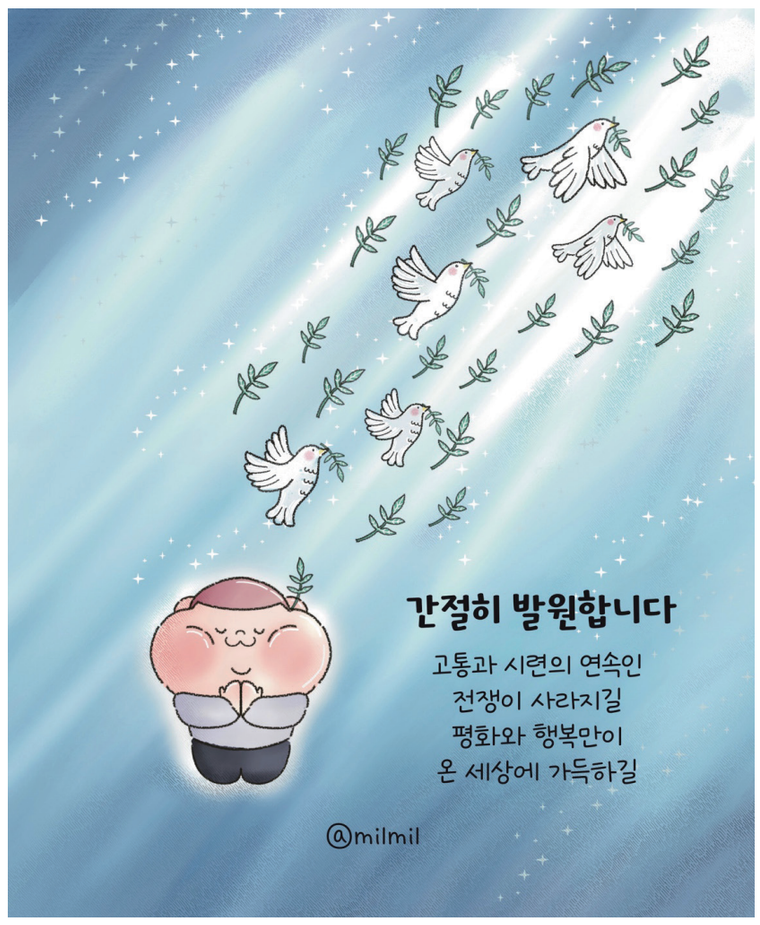
새로운 터전은 종로구의 정비사업에 따라 향후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바라볼 수도 있는 위치다. 문화재와 국가공원 등으로 원각사지에 불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새로 마련한 법당에서 탑신을 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지본처의 시절 인연을 이뤄낸 기분이라는 게 원경 스님의 표현이다. 스님은 새로운 터전을 무료급식소와 법당, 음식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불교, 복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켜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불사란 부처님 일이고, 부처님 일이란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원각사가 부처님 가르침과 시대정신을 담아낸 불사가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